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별호】

주체102(2013). 7
4
목요일
음력 5. 26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사 설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자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41돐이 되였다.

돌이켜보면 주체61(1972)년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애국적헌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1970년대초 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여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하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겨레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 희망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이였다.

공화국정부는 지난 40여년간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조국통일위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이룩되였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정권》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쳤다. 북과 남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전면유린하며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리명박패당의 발악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남조선에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북남관계는 아직도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한것은 남조선의 현 《정권》이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게 계속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는데 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정권》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대범하고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외면하고 그 누구의 《핵문제》니 뭐니 하며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공조》실현에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이 아무리 우심해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꺾을수 없으며 통일애국세력이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필연이다.

온 겨레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새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겨레가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해내외 온 겨레는 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 해도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확고히 고수하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문을 기어이 열어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정책이 종식되여야 한다.

대결과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의지가 있다면 말장난을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현시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가 개선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자주적대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자주적이고 륭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시

7월 4일은 겨레앞에 있어라

김 송 림

분렬에 살아
아픔의 눈물 흘리던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통일환희에 겨워
감격의 눈굽 훔치던 7월 4일
또다시 왔다 40여년의 년륜을 새기며

세월은 아득히 흘러왔어도
그날의 격정은 오늘도 이 땅에
통일의 열기로 후덥게 달아오르거니
아, 겨레의 앞길에
통일의 희망 펼쳐진 날이여

하루하루가 모여 세월이 된다 했지만
조국의 분렬 끝장내시려
그리도 기울이신 심혈
바쳐오신 로고도 많으셨던 수령님
그 심혈과 로고의 세월이 모여 이룬
7월 4일!

잊을수 없어라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통일 이루어야 한다신
수령님의 숭고한 뜻
7.4공동성명의 글발들을

자자구구 읽고 또 읽으며
금시라도 통일이 오는것같아
흥분으로 설레이던 날이여
목이 메이던 겨레의 마음이여

7월 4일 이날은
두터운 분렬의 장벽에
수령님 파렬구를 내신 날
허물수 없는 통일의 초석을 세우신 날
북과 남이 따르는 어버이로
더 높이 길이길이 모셔진 날

그날에 수령님 밝혀주신
통일의 휘황한 진로를 따라
거세차게 흘러온 통일의 년대들이여
7월 4일은
우리 장군님 안아오신
6.15로 빛나라 10.4로 빛을 뿌려라

세월의 흐름도 지울수 없고
반통일의 역풍도 없앨수 없는
7월 4일
이날의 위대한 통일경륜은
통일의 그날까지 뜨겁게 불타오르리
꺼지지 않는 통일희망의 불길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변함없는 통일의 이 진리를 따라
흘러온 40여년세월
이 진리로 7천만을 불러일으키며
7월 4일은 언제나
우리 겨레앞에 있어라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나날에

세 가 지 공 통 점

주체61(1972)년 5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날 밤 12시에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조선측대표를 만나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한조항한조항 말씀하실 때마다 남조선측대표는 《옳은 말씀입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였다.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조항들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는 벌써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다, 외세에 의하여 통일하지 말자, 싸움으로 해결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모든것은 민족단결을 위한 방향에서 출발점을 찾자, 이것이 벌써 공통점이 아닌가, 나는 이 세가지 큰 공통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로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남조선측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확실히 맹세합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시며

주체61(1972)년 5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자들을 만나주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북과 남사이에 고위급정치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온 강토가 통일열기로 달아오르고 국내외정세가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던 때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실제적인 조치 등 여러가지 질문을 올렸던 기자들은 수령님께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물음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한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인 조선민족이 갈라져 살고있는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겨레에게 선물로 주는것을 자신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경쟁이 아니라 합작을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인 주체61(1972)년 11월초 남조선대표들이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왔다.

북과 남사이의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회담의 안건을 놓고 치렬한 론쟁이 벌어지던 11월 3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조선대표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조선언론계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대화있는 대결》이요, 《대화있는 경쟁》이요 하는 말들이 나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과 경쟁을 한다면 몰라도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여서는 안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면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대결하고 경쟁할것이 아니라 합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합작방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다는 남측대표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사이의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본사기자

7·4의 환희를 되새기며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1돐을 뜻깊에 맞이하고있는 지금 온 겨레는 6.15와 더불어 7.4의 환희를 다시 안아올 일념에 차넘쳐있다.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하시고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신 자리에서 조선민족이 둘로 갈라지는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과 조국통일3대원칙은 전체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할 통일강령으로 된다는데 대해 밝히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북과 남은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게 되였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1972년 7월은 말그대로 통일의 환희로 들끓고있었으며 온 민족은 조국의 통일을 미래형으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감수하고있었다.

7.4공동성명발표! 그것은 곧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기치였고 근 30년간을 분렬의 피맺힌 아픔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과 도전속에서도 자기의 궤도를 따라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류례없이 악랄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외면하고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계속 도전해나서고있다.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고 공화국의 진정성이 담긴 북남대화제의도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결렬시키는 천하의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지어 그들은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이 마치 공화국에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민심을 기만하고있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동족대결정책으로 피해를 입는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고 침해당하는것은 민족공동의 리익이며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침략적인 외세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무슨 《핵포기》니, 《진정성》이니 하며 요술을 부리려 할것이 아니라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해내외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41년전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민들

선임자들의 비참한 운명이 보여준것은

고사에는 《만인이 저주하면 비명횡사한다.》는 말이 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과 반통일책동을 일삼아온 남조선의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놓고볼 때 이에 적중한 표현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1970년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7.4공동성명발표로 겨레의 통일기운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되자 《유신》독재자는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면서 《6.23특별성명》이란것을 발표하여 민족분렬영구화책동에 광분하였다. 《유신》독재자의 창안품인 콩크리트장벽 하나만 놓고봐도 동족대결의 극치를 보여주는 민족분렬의 상징이다. 총칼로 권력을 강탈해낸 《유신》독재자가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동족대결에 매달렸지만 결국은 제 심복의 총에 맞아 죽는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유신》독재의 뒤를 이어 숙군쿠데타와 광주대학살을 거쳐 발족한 전두환군사독재《정권》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면서 동족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지어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독재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북의 《수공위협》이라는 터무니없는 위협설을 내돌리며 《평화의 땜》건설을 강행하고 주민들속에 반북대결선동을 요란스레 벌리였다. 그러나 대결《정권》의 말로는 수치스러운 감옥행과 류배살이로 끝나고 말았다.

이른바 《6공》이라고 하는 로태우《정권》이나 김영삼의 《문민정권》 역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흡수통일》을 꿈꾸며 동족대결과 사대매국행위를 일삼았으나 온 겨레의 규탄배격을 받고 사면초가의 신세에 놓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집권전기간 극도의 반북대결정책을 실시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파탄에로 몰아간 리명박《정권》이 내외의 저주와 규탄속에 산송장의 처지에 놓인것도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나온 력사는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파쑈와 대결에 미쳐날뛰는 독재세력은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길에 떨어지고만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현 《정권》이 이전 대결《정권》들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동족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수치와 파멸을 결코 면할수 없다.

윤정호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